

Issue Report

2015. 3. 10

CONTENTS

< 요약 >

1. 충남 DRT 시범사업 필요성
2. DRT 정의 및 특성
3. 중앙정부 DRT 추진동향
4. 충남 DRT 시범사업(당진시) 추진방안
5. 결론

충남 DRT 시범사업 (당진시) 추진방안

김원철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iwonchul@cdi.re.kr

본 연구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수립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요 약

- 충남도는 벽지지역에 고정된 시간과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DRT 사업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호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계획하였음.
- 이에 연구에서는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시행될 충남도 DRT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계획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진시 DRT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설정, 운영협의체 구성 및 역할, 운행 대상마을 선정, 이용요금 및 DRT차량 선정, DRT 예약 및 차량 운행관리, 버스 환승요금 부과방법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언하여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발생하는 간헐적인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DRT 운행은 적합하고, 충남도 및 당진시가 시행하는 DRT 시범사업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추진되어 중앙정부 정책을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충남 DRT 시범사업 필요성 ◀

01

- 고령화 심화, 지속적인 인구감소, 자가용승용차 증가로 버스 이용자가 감소되어 농촌지역의 벽지노선은 공차운행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이용자 감소에 의한 버스업계의 경영애로는 버스운행 시간을 줄여 버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벽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되는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충남도의 삶의 질이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충남도 및 시·군은 버스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재정보조를 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이 보편화되어버린 상황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 등 경제적 논리로 인해 벽오지 지역주민은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임. 벽오지 지역주민은 대부분 고령자이며, 이들의 통행패턴은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간헐적임. 당진시 대호지면은 약 1.81회/1주일¹⁾로 조사됨.
-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정된 시간과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충남도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호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계획하였음.
- 이에 본 고에서는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수행될 충남도 DRT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여, 계획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1) 당진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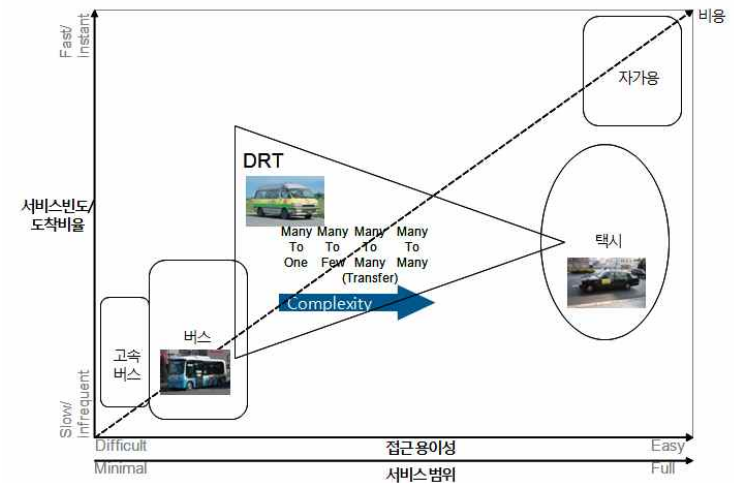
DRT 정의 및 특성 ◀

02

1) DRT 정의 및 서비스수준

-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합승과 개인교통수단인 택시의 문전서비스(door-to-door)의 중간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정의됨.
- 일반적으로 서비스수준은 버스보다 택시보다 낮기 때문에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1>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정의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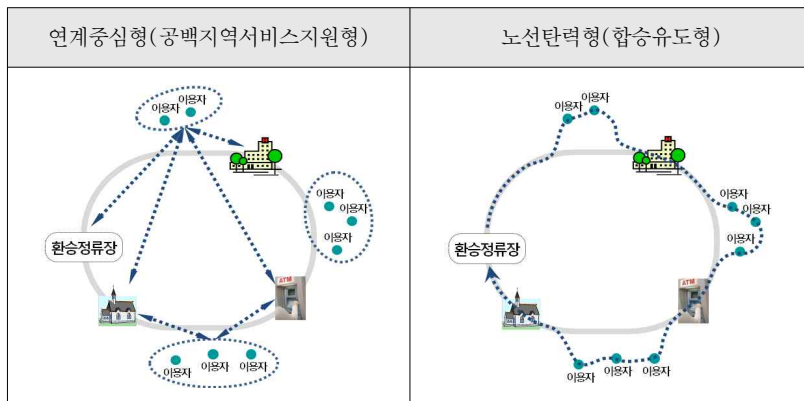


출처 : 충청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연구”, 최종보고서, 2014.1

2) DRT 특성

- DRT는 '택시'와 같이 집 앞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며 동시에 '버스'와 같이 '합승'이 가능해야 하므로 차량의 크기는 승용 및 소형승합차가 적합함.
- DRT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운행되므로 지역별로 이용수요가 고정적인 도시지역 보다는 이용수요가 간헐적인 농어촌지역에 보다 적합한 시스템임.
- DRT는 기본적으로 운행시간과 운행노선이 없지만 지역특성(이용수요와 이용패턴)에 따라 운행노선 혹은 운행시간을 고정하며 운행되는 경우도 많음.
 - 연계중심형은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이 없는 형태로 이용자들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접 연결해주는 운행방식임.
 - 노선탄력형은 운행노선은 있지만 운행시간이 없는 형태로 운행노선을 중심으로 가능한 이용자의 합승을 유도하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그림-2>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특성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이해와 도입방안”, 충남리포트 138호, 2014.11

중앙정부의 DRT 추진동향 ◀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제1항제3호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설,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제50조(재정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에 의거 한정면허를 받아야 함.
 - 한정면허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한정면허의 공고 내용에는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6년 이내),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버스노선이 폐지되거나 도로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마을의 고령자 및 청소년 등 교통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의 시범사업을 시행함.
-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12개 시·군에서 소형버스형 또는 택시형 모델을 도입 운행함.
- 2015년도 신규지원 사업의 공모내용은 택시나 소형버스 등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환승거점지로 교통서비스 제공, 농촌관광 등 경제활동과의 연계 및 복지서비스 거점인 읍면까지 교통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임.
- 지역에 적합한 교통모델을 발굴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에는 2년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6개 시·군을 선정, 전년도 선정된 12개 시·군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3)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국토교통부는 생활불편 해소와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주민 융합 사업을 지원함.
- 사업의 지원규모는 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국비 보조율은 개척지구 보조율을 적용하여 100% 지원함.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은 성취지역 70개 시·군 중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지역개발지원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 특성상 즉시 시행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체 추진의지 및 사업성 평가 후 재지원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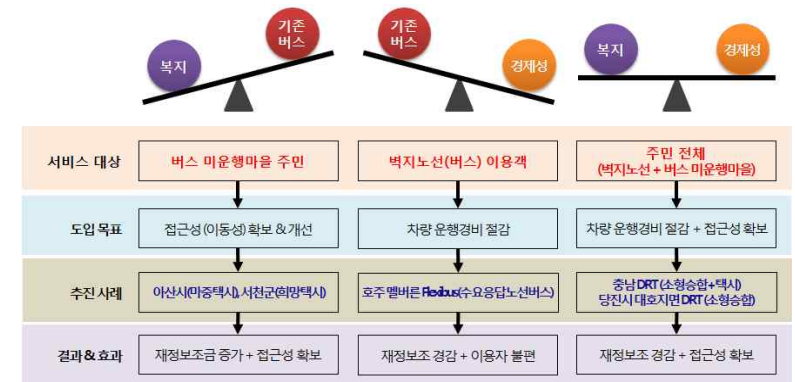
충남 DRT 시범사업(당진시) 추진방안 ◀

04

1) 추진전략 설정

-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도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DRT 운행방식이 상이하므로 DRT 도입을 위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 버스운행대비 복지와 경제성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기존버스 운행보다 복지확대에 무게를 두는 경우에는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기존 벽지노선 운행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가 상존하여 지자체의 재정보조는 증가하게 됨.
 - 기존버스 운행보다 경제성에 치중하여 차량 운행비용 절감 측면에서 접근하면 DRT이 문전서비스 기능이 약화되어 이용자가 기존 버스정류장까지 보행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여 DRT의 서비스수준을 약화시킴.

<그림-2> 충남 DRT 시범사업 추진전략



2) 운영협의체 구성 및 역할

- 운영협의체 구성 목적은 DRT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안착될 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운영·관리자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운영협의체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충남도 및 당진시 공무원과, 실제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회사(당진여객), 운행의 효과 및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문가(충남발전연구원), 사업대상지(마을) 지역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마을주민대표(이장단), 차량운행 관련 지도를 담당하는 지역경찰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협의체 모임은 최소 1개월에 1회 정도 운영하며, 모임 구성은 매달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이장단회의와 시기를 맞춰, 마을대표의 참석을 최대로 이끌어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1> 충남 DRT 시범사업(당진시) 운영협의체 구성 및 역할

주체	역할
충남도 · 당진시	- DRT 시범사업 총괄 책임 (운영협의체 회의 주관) - 시범사업 관련 면허(한정면허) 부여 (공개 선정)
당진여객	- 운행 계획(배차 계획 및 노선 계획) 수립 - 사전/운행중/사후 해당노선 버스 이용현황 조사 - 차량 운전기사 교육 및 관리 (특히, 친절도 교육) - 예약데스크 운영(오퍼레이터 운영 및 관리) (특히, 친절도 교육) - 차량에 '한정' 표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의거)
충남발전연구원	- 모니터링(사전/운행중/사후) 시행 - (사전) 홍보물 제작 및 지역주민 교육, 운행계획 수립 - (운행중) 이용 및 운행현황 모니터링 (개선 의견 수렴) 등 - (사후) 시범사업 전체 분석 (경제성 포함)
대호지면 대표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협조 - 시범사업 전반 (DRT 정류장 선정 관련) 협조
경찰	- 교통안전 등 지원

3) 운행 대상마을 선정

- 운행대상은 DRT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마을을 의미하며, 시범사업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DRT 운행은 비수익사업으로 운수업체의 참여도가 높지 않고,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는 초보사업으로 실패 확률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대호지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2대의 소형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는 고비용 투자 전략은 효과평가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대안으로 DRT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비스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시범사업 투자 비용과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컴팩트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전략 도입이 필요함.

<그림-3> 충남 DRT 시범사업(당진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구분	대안1 (일부지역 연계중심→노선탄력형)	대안2 (전지역 연계중심→노선탄력형)
	5개 마을 (송전리, 마중리, 출포리, 조곡리, 사성1리)	대호지면 전지역
DRT 운행마을		
DRT 차량	소형승합차 1대	소형승합차 2대
장점	컴팩트한 사업효과 도출	최적의 DRT 효과 도출
단점	형평성 문제 야기	초기 고비용 소요

출처 : 충청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연구”, 최종보고서, 2014.1

4) 이용요금 및 DRT 차량

(1) 이용요금 설정

- DRT 서비스가 대중교통의 일반적 복지확대를 지향하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지만, DRT 서비스수준은 기존 버스보다는 높고 택시보다는 낮은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수요와 차량운행경비, 세출 가능한 행정부담, 지역주민의 요금 저항감 등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요금 설정시 중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운행의 확보이므로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세금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재정보조를 하는 이상 DRT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비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어야 함.
 - 요금설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중교통업계의 합의가 필요하고, 책정 이후에는 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중요함.
- 구체적으로 이용요금 설정시, 재정지원금, 주민형평성, 기존 대중교통요금 수준, 교통서비스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지원 최소화 : 낮은 이용요금만이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시내버스요금 수준 이상으로 책정.
 - 지역 주민 형평성 :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DRT 서비스 미수혜 주민과의 버스요금 형평성 제고.
 - 대중교통요금 : 버스미운행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서비스의 확장측면에서 대중교통요금 수준을 고려.
 - 교통서비스수준 : 접근성, 운행빈도 등 기존 버스에 비해 서비스수준이 높으므로 이에 합당한 요금 책정.
- 당진시는 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1회 환승에 한하여 환승요금이 무료인 상황과, DRT가 대호지면 또는 정미면에서 기존 버스로 환승해야하는 이용자의 불편성을 감안하여 기존 대중교통서비스의 확장 측면에서 기존 버스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제안함.

- DRT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DRT 쿠폰을 구입·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버스요금에서 100원을 할인(교통카드 할인을 2배) 하는 방식을 적용함.

(2) DRT 차량 선정

- DRT 서비스 대상마을이 대호지면 전역이 아니고 5개마을(송전리, 마중리, 출포리, 조금리, 사성1리)이므로, 이용수요²⁾를 감안하여 소형승합차 1대를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소형버스의 규모는 이용자가 짐을 갖고 탑승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15인승이 적합하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어 차량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12인승을 투입하고 평상시에는 좌석 맨 뒷열은 접은 상태로 이용자의 짐을 상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금을 수수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에도 운수회사(DRT 차량 운행)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여야 함. 차량의 구입 및 소유 방식은 당진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식 또는 운수회사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을 임차하여 DRT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당진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3.12

5) DRT 예약 및 차량 운행관리

(1) 예약 및 배차방법

- 이용자로부터 DRT 예약을 접수받고 DRT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지시할 수 있는 예약데스크가 필요함. 예약데스크는 하드웨어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이 중요하므로 예약데스크는 관리의 편의성, 공공성, 투명성과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해야하는 성격을 감안하여 면사무소 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약데스크는 예약운행일지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예약을 접수받는 전화기로 최소사양으로 구성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전략이 요구됨.
- DRT 이용예약은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퍼레이터와 이용자가 1:1 전화상담으로 DRT 이용시간을 협의하여 간헐적으로 발생된 이용예약을 DRT 차량에 배차지시하여 운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차고지

- DRT 차량의 운행관리를 위해 차고지는 면사무소의 일부공간을 할애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차량의 안전관리 및 세차 등을 수행하기에는 기반시설 등이 기 확보되어 있는 운수회사에 박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임.

(3) 서비스 제공 방식

- 당진시 시범사업에서 DRT 서비스 제공범위는 시범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과 대중교통의 연장선상의 이동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호지면 내로 설정하고, 대호지면사무소(버스정류장) 또는 정미면사무소

(버스정류장)에서 기존 버스로 환승하는 방안으로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당진시내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이용자, 당진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이용자,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호지면에서 당진 시내 저점시설까지 직결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DRT 이용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
- DRT 서비스 공급방식은 5개월(3월~7월)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전반기 3개월은 DRT 운행시간대 기존 버스도 운행하여 지역주민이 DRT를 이용하는데 적응하는 기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후반기 2개월은 기존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DRT만 운행해봄으로써, 서비스대상마을에서 DRT가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함.
- DRT 운행시간대는 당진시 대호지면 주민들의 평상시 통행패턴 분석결과³⁾를 토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이용대상 설정

- DRT는 기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대상 지역 벽지노선의 비효율적 운행을 개선하는 도입목적을 지니고 있음.
- DRT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을 고령자 위주로 설정하는 등 특계계층만 참여시키는 방안이 적합하나,
- 당진시의 DRT 시범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주민의 이동권 향상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전계층이 이용하도록 이용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당진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3.12

6) 버스 환승요금 부과방법

- DRT를 이용하고 타 수단(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두 가지 요금부과 방식이 있음.
- 교통카드 이용 방식
 -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버스를 이용할 때 환승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DRT 승차시 카드를 태그하고 타 버스로 환승 후 카드를 태그하여 이용요금(단일요금)이 자동정산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현금 이용 방식 (시범사업 적용방식)
 - 시범사업 기간에는 DRT 차량에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DRT 이용자가 버스로 환승하려는 경우 DRT 운전사가 배포하는 환승쿠폰을 버스기사에게 제시함으로써 무료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3> 버스 환승시 요금 부과방법

● 교통카드 이용자



● 현금 이용자 (시범사업 적용)



- 충남도가 벽지노선의 운행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도입사업을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시범으로 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에, 당진시 DRT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설정, 운영협업체 구성 및 역할, 운행 대상마을 선정, 이용요금 및 DRT차량 선정, DRT 예약 및 차량 운행관리, 버스 환승요금 부과방법에 대한 실행방을 제언하여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본 DRT 시범사업은 충남도가 DRT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에 앞서 대호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과정에 DRT 사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일련의 절차를 도출하는데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발생하는 간헐적인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DRT 운행은 적합하고, 중앙정부의 추진동향으로 볼 때 충남도 및 당진시가 시행하는 DRT 시범사업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추진되어 중앙정부 정책을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 충남발전연구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이해와 도입방안”, 충남리포트 138호, 2014.11
- 충청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연구”, 최종보고서, 2014.1
- 당진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3.12